1890년 이후 개항장 미가의 단기변동과 미곡매매 사례

김 기 성*

1. 서론
2. 미가의 단기변동 양상
3. 仁川郵船會社의 미곡매매
4. 결론

초록: 미곡수출이 본격화된 1890년 이후 개항장의 미가는 계절의 변화, 오사카 미가, 국내의 수요, 투기, 防穀令의 실시, 국내외의 정치적 변동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단기변동이 매우 심하였다. 1달 사이에 1엔 가량 폭등하기도 하고 며칠사이에도 등락이 바뀌는 등 변화가 매우 빠른 시기도 있는가하면, 1년 가까이 하락세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개항장의 미가는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그 변화를 예측하기 매우 어려웠다. 특히 대량의 미곡이 오사카로 수출되면서 미가가 해외시장과 연동하기 시작한 것은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시장상황에 대한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또 변화의 속도도 빨라 약간의 시간차이로 이익과 손해가 갈라졌다. 이렇게 단기변동이 심한 시장 환경은 보통 대자본가에게 유리하다. 자본금을 활용해 시간차에 의한 유통이윤을 확보하고 투기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소상인과 비교할 때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仁川郵船會社의 미곡매매는 1) 국가권력을 바탕으로, 2) 군산과 인천의 미가변동과 매입상황을 예의주시하며, 3) 기선의 확보에도 유의하며 이루어졌다. 이는 급변하는 시장상황 속에서 이윤을 내기 위하여 적응한 결과다. 동시에 당시 미곡상이 미곡을 매매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해야 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 중소상인들은 장기보관, 汽船의 확보, 물가정보의 획득, 자본력 등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미가의 단기변동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상당수의 중소상인들은 미곡매매를 통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즉, 개항장의 미곡시장에는 중소상

*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www.kci.go.kr

인에게는 위험하고, 국가권력과 결탁된 소수의 대자본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핵심어 : 米價, 단기변동, 仁川郵船會社, 개항장, 미곡수출

1. 서 론

조선에서 쌀은 가장 중요한 생산품이자 백성들의 삶을 유지하는 생활필수품이다. 조선후기 정부는 財政物流와 還穀를 중심으로 하는 재분배를 통해 백성들에게 쌀을 원활히 공급하고자 노력하였다. 1876년 개항 이후 조선이 세계자본주의체제에 편입되면서 미곡이 국외로 수출되기 시작하다. 쌀의 수출로 조선의 재분배구조는 근본부터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1890년 이후 쌀의 수출 본격화되어 무역 전반을 좌우하게 되고, 갑오개혁시기 전면적으로 실시된 租稅金納化가 미곡의 상품화를 촉진하면서 그러한 경향은 더욱 커졌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미곡 수출은 일찍부터 여러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우선, 金敬泰,[1] 姜德相,[2] 韓沽劤[3]은 불평등조약체제를 강조하며 그 속에서 진행된 미곡무역의 약탈적 측면에 주목하였다. 다음으로 일본의 자본주의 발전과 미곡수출을 연결시켜 바라본 吉野誠,[4] 米綿交換體制의 틀로 살펴본 村上勝彦,[5] 쌀 뿐만 아니라 콩을 포함하여 穀綿交易體制로 규정하고 시기별로 무역의 특징을 분석한 崔泰鎬[6] 등은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인천의

1) 김경태, 1994『한국 근대 경제사 연구』, 창작과비평사.

2) 姜德相, 1962「李氏朝鮮開港直後に於ける朝日貿易の展開」,『歷史學硏究』265, 歷史學硏究會.

3) 韓沽劤, 2001『韓國開港期의 商業硏究』, 한국학술정보(주).

4) 吉野誠, 1975 朝鮮開國後の米穀輸出について」,『朝鮮史硏究會論文集』12, 朝鮮史硏究會; 1978, 李朝末期における米穀輸出の展開と防穀令」,『朝鮮史硏究會論文集』15, 朝鮮史硏究會.

5) 村上勝彦 지음(정문종 옮김), 1984『식민지 -일본 산업혁명과 식민지 조선』, 도서출판 한울.

6) 崔泰鎬, 1992 開港期의 貿易構造와 貿易物價에 관한 硏究 -開港期의 穀·綿交易體制를 中心으로-」,『擇窩許善道先生停年記念韓國史學論叢』, 일조각.

www.kci.go.kr

미곡시장을 둘러싼 한상과 일상의 첨예한 대립을 밝혀내고 그 과정에서 일상이 仁川米豆取引所를 통해 미곡시장을 장악하고 식민지적 미곡반출기구로 정착시켰다고 본 김도형의 연구도 있다.[7)]

이상의 연구들은 주로 중하층 농민에 대한 제국주의 혹은 식민지적 수탈과 조선인들의 저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崔柳吉은 수출입상품의 가격조건 비교를 통해 수출품의 상대가격이 수입품보다 나아지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8)] 또 무역의 확대로 수출품 생산의 주도층을 중심으로 상품구매력이 향상되었으며, 따라서 국내상품의 유통량이 증가하고 상업도 활성화되었고, 지주층은 농지개간과 미곡매매, 선박운송에 투자하는 경향이 생겨났다고 주장하였다. 이헌창도 서울시장의 수입상품유통을 분석하여 1905년까지 외국상인의 상권침탈이 진행되기는 하였지만, 국내유통도 함께 증가했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가 상권침탈을 과대평가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9)]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하원호는 미곡무역과 미가의 상승이 조선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10)] 그는 개항 이후 부산(1877~1904), 원산(1880~1904), 인천(1883~1904)을 중심으로 미가의 장기적 상승현상을 밝혔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미가의 상승은 두 가지 측면에서 조선경제에 영향을 미쳤다. 우선 미곡가격이 상승하면서 다른 작물보다 미곡을 생산하는 것이 유리해졌다. 이는 米穀單作化 현상으로 이어졌고, 그 결과로 조선의 綿作과 綿布産業이 몰락하였다. 그리고 미곡가격이 올라가자 지주들은 지대를 올려 이익을 늘렸지만, 반대로 지대가 올라가서 소득이 줄어든 부농층은 몰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이처럼 그의 연구는 내재적 발전론의 입장에서 개항 이후 미곡유통과정을 통해 조선의 면포산업과 부농층이 몰락한 원인을 추적하였다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

7) 김도형, 1992 갑오 이후 인천에서의 미곡유통구조 - 인천미두취인소」의 설립을 중심으로-」, 『擇窩許善道先生停年記念韓國史學論叢』, 일조각.

8) 崔柳吉, 1973 李朝開港直後의 朝日貿易의 動向」, 『아세아연구』 15-3, 아세아문제연구소.

9) 이헌창, 2000 1882~1910년간 서울시장의 변동」, 『서울상업사연구』, 서울학연구소.

10) 하원호, 1997 『한국근대경제사연구』, 신서원.

www.kci.go.kr

반면, 위의 연구에서는 대외무역과 긴밀하게 연결된 미가의 단기변동과 그에 따라 형성된 시장상황이 일종의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면서 상인의 이윤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는 점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시장의 단기변동에 주목한 연구로는 김윤희의 연구가 주목된다.[11] 그는 세계체제분석에 근거하여 불안정한 시장 환경에 맞는 자본축적 방식을 서술하면서 상품유통과 거래방식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서울과 인천을 중심으로 단기변동이 심한 불안정한 시장 환경이 대자본가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자본가의 자본운동 논리를 추적하였다. 특히, 개항장과 서울을 중심으로 대자본가에 유리하게 조성된 시장 환경이 다른 중소상인은 물론이고 사회전체에게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시각은 개항기의 시장과 자본에 대한 연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의 대상이 인천-서울 사이에서 수입무역에 종사하였던 대자본가 특히, 대한천일은행을 이용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미곡무역을 분석의 시각에 넣지는 못하였다.

개항장은 조선정부의 통제력이 제한되는 공간이었다. 조선정부의 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개항장의 경제상황은 자유주의시장경제와 유사하였고, 시장 환경은 해외시장과 연결되어 변화의 정도나 속도가 기존의 국내시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빨랐다. 따라서 이러한 시장 환경이 누구에게 유리하였으며 누가 적응하여 이익을 거두었는가를 살펴본다면, 1)민족과 국적을 기준으로 유불리를 판단했던 것과는 다른 역사상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고, 2)자유주의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적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당시 미가의 단기변동이 시장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상인은 시장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어떻게 행동하였는지를 통해 개항기 미곡매매가 가진 역사적 성격의 한 단면을 밝혀보려고 한다. 그러기 위해 우선 미가의 단기변동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손익결정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미곡매매에 참여하였던 상인의 일기를 통해 당시 미곡매매의 실상에 대해서 접근하고 그 의미를 분석해 보는 것으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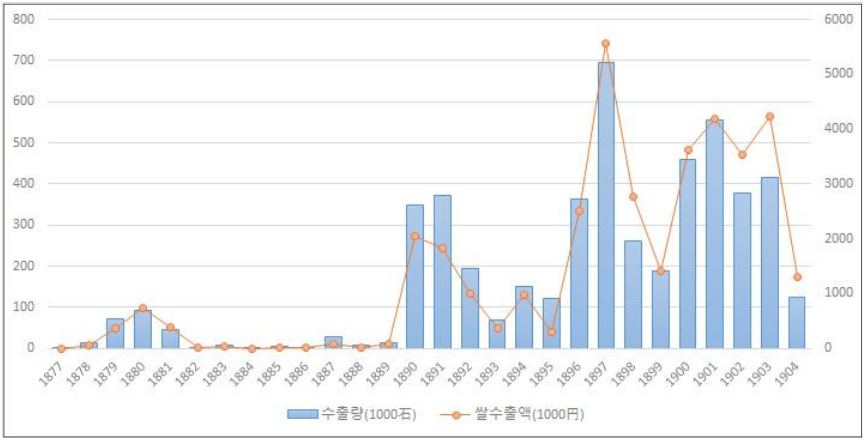
---

11) 김윤희, 2012『근대 동아시아와 한국 자본주의 -공생과 독점, 이중지향의 자본축적-』,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院.

www.kci.go.kr

2. 미가의 단기변동 양상

개항기 동안 조선의 쌀은 대부분 일본으로 수출되었지만, 개항 초기부터 쌀이 대량으로 일본에 수출된 것은 아니었고 1890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출되기 시작하였다. 1889년 가을 일본에서는 대흉작으로 미가가 상승하였다. 거기에 1890년 夏麥마저 흉작이 되면서 미가가 폭등하여 쌀소동이 일어났다. 반면, 조선에서는 쌀이 대풍년이었다.[12] 이때에 일본인 미곡상들은 조선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쌀을 사서 일본에 비싼 값으로 판매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남길 수 있었다. 이를 계기로 쌀이 주요 대일수출품으로 부상하게 된 것이다. 아래의 〈그림 1〉과 같이 1890년 이전에도 쌀이 수출되는 경우는 있었지만 규모나 액수 모두 1890년 이후와 비교되지 않는다.



〈그림 1〉 1877~1904년 對日 쌀수출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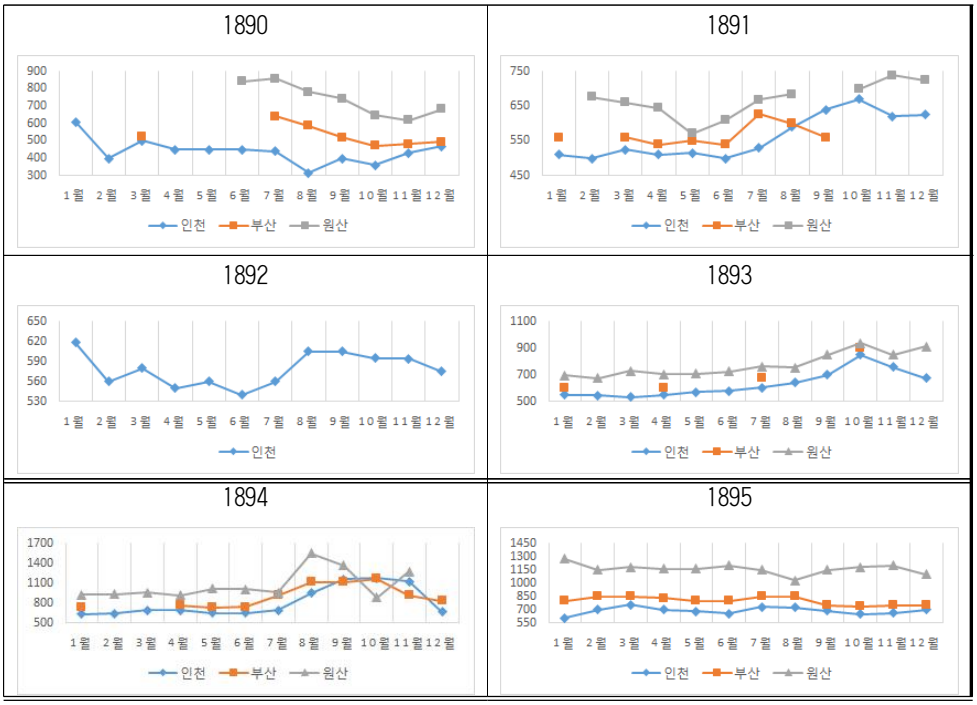
출전: 수출액은 하원호, 1997, 앞의 책, 125면, '[표1-1] 곡물의 대일(對日)수출액 구성비(1877~1904)'를 바탕으로 작성. 수출량은 吉野誠, 1983 「조선개국후의 곡물수출에 대하여」, 『甲申甲午期의 近代變革과 民族運動』, 청아출판사, 32-33면, '표1 쌀 및 콩의 輸出額'을 바탕으로 작성(2.5担=1石으로 환산).

12) 하원호, 2006 「개항후 인천의 대외무역과 그 영향」, 『한국민족운동사연구』 4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10면.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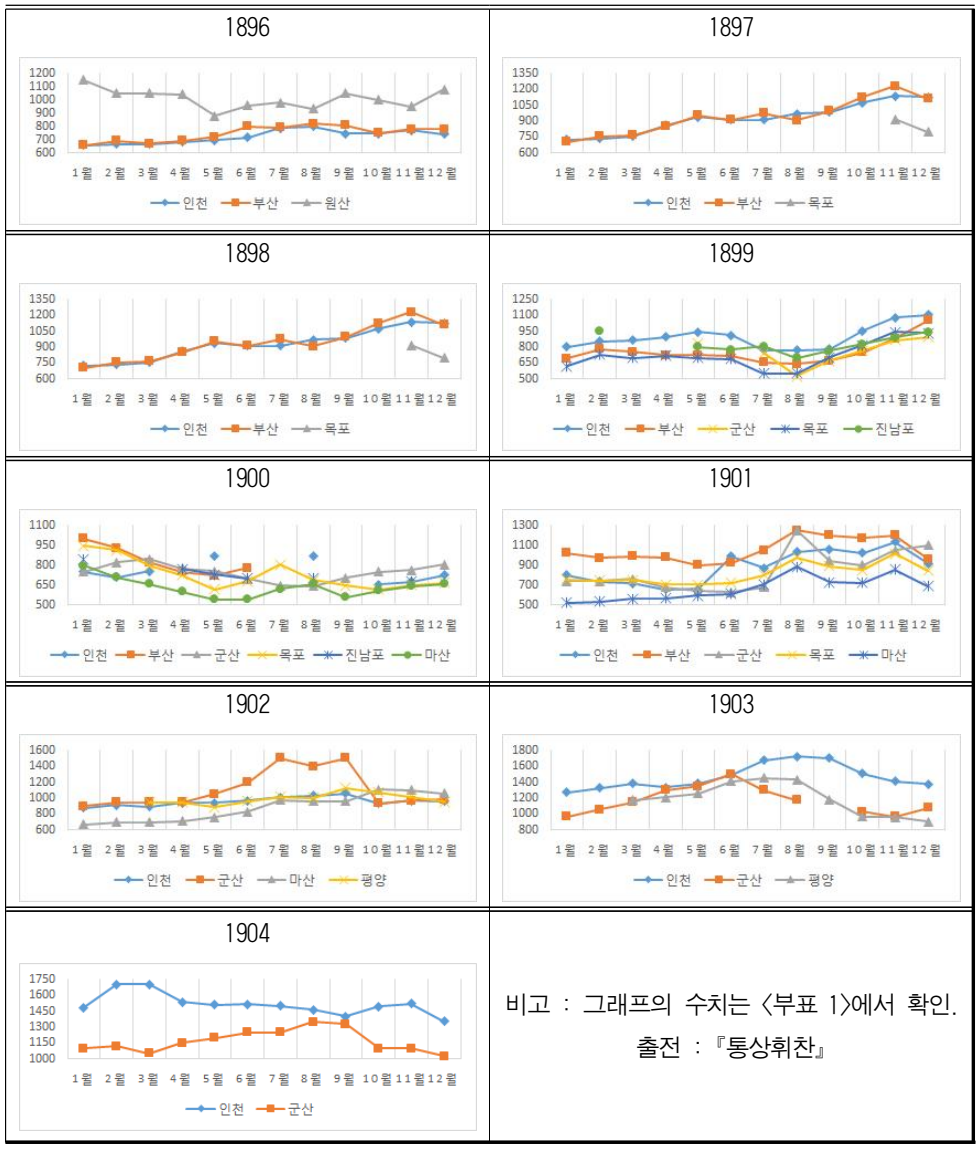
여기에 1894년 조세금납화의 실시 이후에는 농민들이 일정량의 미곡을 시장에 상품으로 팔아 조세로 납부할 화폐를 마련해야 했다. 때문에 더욱 많은 쌀이 시장을 통해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개항장을 중심으로 '미곡 수출의 증가 → 조선인의 구매력 상승 → 수입품의 판로 확대 → 수입의 증가'의 구조가 형성되면서 미곡 수출이 조선의 전체 수출입무역을 주도하였다.[13] 따라서 미곡시장에 대한 분석은 조선의 무역 전체를 살펴보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가격의 변동은 시장을 이끌어 가는 가장 중요한 수치이자 이익과 손해를 나누는 결정적인 기준이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미가를 중심으로 시장상황을 살펴보려고 한다. 아래의 〈그림 2〉는 1891~1904년 사이에 각 개항장의 미가를 월별로 표시한 것이다.

(단위 : 일본 錢)



13) 『통상휘찬』 한국편 5, 「二十九年中仁川港商況年報(30年 8月 27日 在仁川領事館報告)」, 603면.

www.kci.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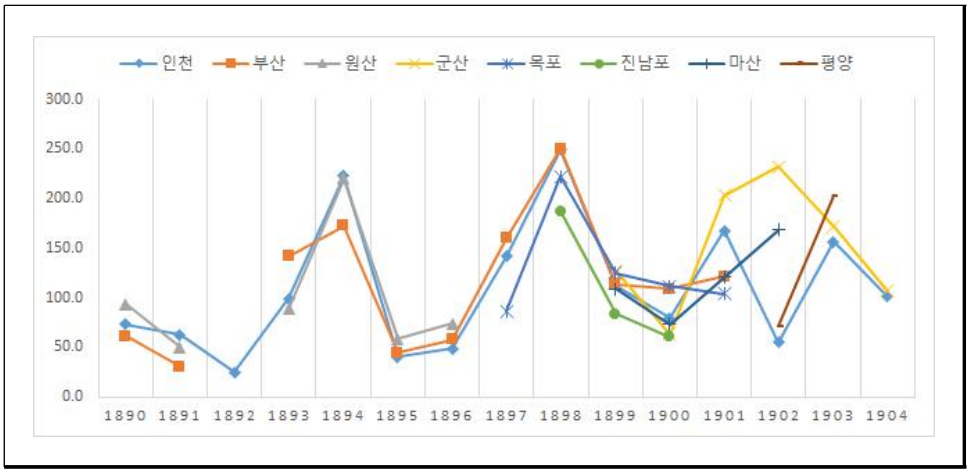


〈그림 2〉 1890~1904년 개항장 월별 미가 변화

이를 통해 당시 미가의 변동이 상당히 심했고, 각 연도별로 변동의 양상에도 많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연도와 지역에 따른 미가변동의 경향에

www.kci.go.kr

대하여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미가의 표준편차를 구하여 그래프로 표시하면 〈그림 3〉와 같다.



비고 : 그래프의 수치는 〈부표 2〉에서 확인.

〈그림 3〉 1890~1904년 미가의 연도별 표준편차

미가변동은 1894년에 심하고 이후 잠시 줄어들었다가 1897~1898년에 다시 커진다. 그리고 1899~1900년 동안은 상대적으로 미가가 안정되었다가 1901년에 다시 변동이 심해지고, 1902년에 일시 안정되었다가 1903년 다시 커진다. 1894년의 경우 청일전쟁과 동학농민전쟁의 영향으로 미가가 급등한 시기였다.[14] 다음으로 1897년은 조선의 풍작과 일본의 흉작이 겹치면서 미가가 급등하였고,[15] 1898년에는 작년 일본의 흉작으로 전반기에 미가가 올랐다가 그 해에 일본 농사가 풍작이 되면서 하반기에 시세가 급락하였다.[16] 1901년에는 1900의 풍년으로 수출이 늘어

14) 『통상휘찬』 한국편 2, 「二十七年中仁川港商況年報(28年 3月 27日 在仁川領事館報告)」, 293-294면.

15) 『통상휘찬』 한국편 6, 明治三十年中仁川港商況年報(續)(31年 8月 6日 在仁川領事館報告)」, 442면.

16) 『통상휘찬』 한국편 7, 「仁川三十一年中貿易年報(32年 10月 5日 在仁川帝國領事館報告)」,

www.kci.go.kr

났고, 6월부터는 일본미가가 상승하여 수출이 증가하였지만 극심한 가뭄으로 흉작이 예상되면서 방곡령이 발표되어 미가가 급락하였다.[17] 1903년은 2년 전부터 작황이 좋지 않아(1901년 6割作, 1902년 8割作) 수출이 부진하였고, 미곡의 부족으로 인하여 安南米, 上海米 등의 외국미를 다량 수입하였기 때문에 미가변동이 심하였다.[18]

〈그림 2〉의 가격은 연도별, 개항장별로 제각각이지만, 〈그림 3〉의 표준편차는 전국적으로 거의 일치한다. 이는 개항장의 미곡시장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1902년 군산과 마산의 미가변동이 예외적이다. 군산의 경우는 1901년 한발로 전라도와 충청도의 피해가 심해 1분기에 출하가 부진하였고 오사카 시세도 하락하여 시장은 침체되었다. 특히 3분기는 역사에 기록될 정도의 불황을 겪었다. 수출은 전혀 없이 오히려 미곡이 수입되었고, 시세 역시 1석에 15엔까지 올랐다. 그러다 4분기에 들어서 수확이 충분하여 수출도 폭증하였다. 1902년의 총 수출액은 41만 7,451엔인데, 4분기에만 38만 9,832엔을 기록하였다. 이 때문에 미가변동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심하였다.[19]

마산의 경우는 1월과 2월에 많이 출하된 쌀이 5월 오사카 미가가 오르면서 수출이 증가하였다. 지방의 조선인들도 오사카 미가의 상승을 기회로 저장하고 있었던 쌀을 방출하면서 마산지역의 수출이 작년에 비하여 2배나 증가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인 미곡상들이 모여들어 미곡을 매입하는 지역이 늘어났기 때문에 미가 변동이 심하였다.[20]

개항기 미가의 장기적 추세는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를 통해서

666-669면.

17) 『통상휘찬』 한국편 10, 仁川三十四年貿易年報(35年 9月 30日 在仁川帝國領事館報告)」, 364-356면.

18) 『통상휘찬』 임시증간 제29호, 仁川三十六年貿易年報(38年 2月 24日 在仁川帝國領事館報告)」, 11-12면. 개항장별 미가변동의 추이에 대하여는 하원호, 1997, 위의 책, 215-253면을 참조.

19) 『통상휘찬』 임시증간 제311호, 「群山三十五年貿易年報(36年 10月 30日 在群山帝國領事館分館報告)」, 19면.

20) 『통상휘찬』 임시증간 제7호, 「群山三十五年貿易年報(36年 5月 18日 在馬山帝國領事館報告), 67-68면.

www.kci.go.kr

밝혀진 바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림 2〉에서 보이는 단기변동에 주목하여 그 원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당시 미곡무역의 월별 양상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개항기 미곡무역은 기본적으로 수확이 끝난 늦가을에서 봄까지 가장 활발하고 농번기인 여름과 가을에는 일반적으로 한산하다.[21]

이를 월별로 살펴보자면, 1월은 설을 맞이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을 사려고 저장하고 있던 곡식을 판매하기 때문에 출하가 늘어나는 시기이다.[22] 설맞이를 위한 자금이 필요한 판매자가 적극적으로 판매에 나서 출하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가격은 하락하는 경향이 있다.[23] 2월은 상순 무렵에 설명절로 보통 10일에서 3주 정도를 쉬기 때문에 이 기간에 무역은 거의 휴업상태가 된다.[24] 3월은 하천의 해빙이 시작되어 지난해 수확된 미곡이 다시 출하되기 시작하는 시기이다.[25] 반면, 낙동강 연안에서는 이 시기부터 장마 때까지 낙동강의 물이 줄어들어 내륙 지역의 물길이 막히기 때문에 출하가 중지되기도 한다.[26] 5월은 보리를 수확하는 시기인데,[27] 보리는 쌀의 대용품이기 때문에 작황이 좋지 않으면 미곡의 출하량도 감소한다.[28] 보리수확이 시작되는 5월~6월부터는 농번기가 시작되어 농민들이 미곡판매에 나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무역이 줄어든다.[29] 8월~9월 초는 태풍과 폭우 등으로 인하여 수확 전에 찾아오는 마지막 고비이다.[30] 농민들은 이 시기에 자주 발생하는 자연재해를 우려하여 흉풍의 여부가 명확히 확인되기 전까지 미곡의

---

21) 『통상휘찬』 한국편 1, 二十七年五月中釜山港商況(27年 6月 23日 在釜山總領事館報告), 429-431면.
22) 『통상휘찬』 한국편 1, 二十七年一月中仁川港商況(27年 3月 23日 在仁川領事館報告) , 245면.
23) 『통상휘찬』 한국편 2, 二十八年一月中仁川港商況(28年 2月 21日 在仁川領事館報告) , 221면.
24) 『통상휘찬』 한국편 1, 本年二月中仁川港ノ商況(27年 3月 28日 在仁川領事館報告) , 273-277면.
25) 『통상휘찬』 한국편 2, 二十八年三月中仁川港商況(28年 4月 24日 在仁川領事館報告)」, 443-447면.
26) 『통상휘찬』 한국편 6, 「本年三月中釜山港商況(31年 5月 16日 在釜山領事館報告)」, 109면; 本年七月中釜山港商況(31年 8月 31日 在釜山領事館報告)」, 427면.
27) 『통상휘찬』 한국편 2, 本年五月中釜山港商況(28年 6月 29日 在釜山領事館報告) , 678-682면.
28) 『통상휘찬』 한국편 4, 「本年七月中釜山港商況(29年 9月 17日 在釜山領事館報告)」, 172면.
29) 『통상휘찬』 한국편 5, 明治三十年六月中釜山港商況(30年 8月 7日 在釜山領事館報告) , 270면.
30) 『통상휘찬』 한국편 3, 本年九月中仁川港商況(28年 10月 29日 在仁川領事館報告) , 316-317면.

www.kci.go.kr

판매를 미루는 경향이 있다.[31] 그리고 9월에는 추석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1월과 같이 상업이 약간 활기를 띤다.[32] 특히 추석은 농번기로 인한 불경기가 끝나고 호경기로 넘어가는 시점이다.[33] 9월~10월은 지난해에 수확한 쌀의 출하가 끝나고 올해 수확한 햅쌀의 출하가 교차되는 시기이다. 따라서 지난해에 작황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 시기에 미곡공급이 끊어져 미가가 크게 오르는 경우가 있다.[34] 10월부터 冬至 전후의 결빙기까지의 기간은 미곡이 왕성하게 출하되는 계절로 보통 무역액이 가장 많은 시기이다.[35] 특히 11월은 수확이 끝나 본격적으로 출하가 시작되는 달이다.[36] 한겨울에는 하천의 얼어붙어 운송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37] 해빙되기 전까지 상업은 침체된다. 이를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1〉 개항기 미곡무역의 월별 양상

구분	내 용	상 업	비 고
1월	설 준비로 출하 증가	보통	하천 결빙시 출하 불가능
2월	설 연휴로 휴업상태	불황	
3월	해빙 이후 지난해 묵은쌀 출하 재개	호황	
4월	미곡출하	호황	
5월	보리수확 시작	보통	보리작황이 미곡출하에 영향
6월	보리수확 및 모내기로 농번기	불황	재해 여부에 따라 미가변동
7월	농번기	불황	재해 여부에 따라 미가변동
8월	농번기	불황	재해 여부에 따라 미가변동

31) 『통상휘찬』 한국편 4, 「本年八月中京城商況(29年 9月 19日 在京城領事館報告)」, 189면.
32) 『통상휘찬』 한국편 3, 「二十八年十月中釜山港商況(28年 11月 30日 在釜山領事館報告)」, 354면.
33) 『통상휘찬』 한국편 6, 「本年九月中木浦商況(31年 10月 26日 在木浦領事館報告)」, 604면.
34) 『통상휘찬』 한국편 1, 「明治二十六年中仁川港商況年報」, 513-515면.
35) 『통상휘찬』 한국편 1, 本年十月中仁川港商況(26年 11月 25日 在仁川領事館報告) , 757-758면.
36) 『통상휘찬』 한국편 1, 明治二十六年中京城商況年報(27年 4月 16日 在京城領事館報告) , 205면.
37) 『통상휘찬』 한국편 1, 京畿道及忠淸道地方商況幷ニ農況視察報告(26年 10月 21日 在京城領事館報告)」, 34면.

www.kci.go.kr

9월	추석 준비로 출하 증가 추석은 불경기에서 호경기로 넘어가는 시점 흉풍의 여부가 결정	전환기	재해 여부에 따라 미가변동
10월	묵은쌀과 햅쌀의 교차	호황	미곡부족으로 미가폭등 가능
11월	햅쌀이 본격적으로 출하	호황	
12월	햅쌀의 출하, 월말부터 하천의 결빙 시작	호황	

즉, 미곡의 수출은 1년 내내 동일한 양상을 띠는 것이 아니다. 추수가 끝나서 출하가 시작되는 시기부터 겨울철 하천이 결빙되어 출하가 중지되는 시기까지(10월~동지), 그리고 이듬해 해빙이 되어 출하가 다시 시작되는 시기부터 농번기가 시작되어 출하가 중지되는 시기까지(3월~5월)의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미곡매매로 이익을 보기 위해서는 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미곡산지로 들어가 미곡을 매입하고 그 미곡을 개항장으로 운반하여 판매를 마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미가가 단기변동하는 주요 원인들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다. 오사카 시장은 조선 미가 수출되는 가장 중요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개항기 내내 조선 미가는 오사카 시장의 미가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일반적으로 오사카 시장의 시세가 높으면 수출을 위해 개항장에서 미곡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미가가 오르고, 반대로 시세가 내려가면 개항장의 미곡 거래가 침체되면서 미가도 하락하였다.[38] 평균적으로 조선 미가는 오사카 미가와 石당 평균 2.37엔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후기로 갈수록 차이가 줄어들어 조선 미가가 오사카 미가에 접근하고 있었다.[39] 이러한 영향력은 장기적인 추세뿐만 아니라 단기적인 변화에서도 동일하였다. 오사카에서 온 전보는 단번에 온 항구의 시세를 오르내리게 하는 힘이 있었고, 인천의 미가는 오사카 미가에서 수출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을 제외하면 대략 일치하는 것이 보통이었다.[40]

38) 하원호, 1999, 위의 책, 130-131면; 260-261면.

39) 개항기 조선 미가와 오사카 미가의 추이에 관하여는 위의 책, 260-261면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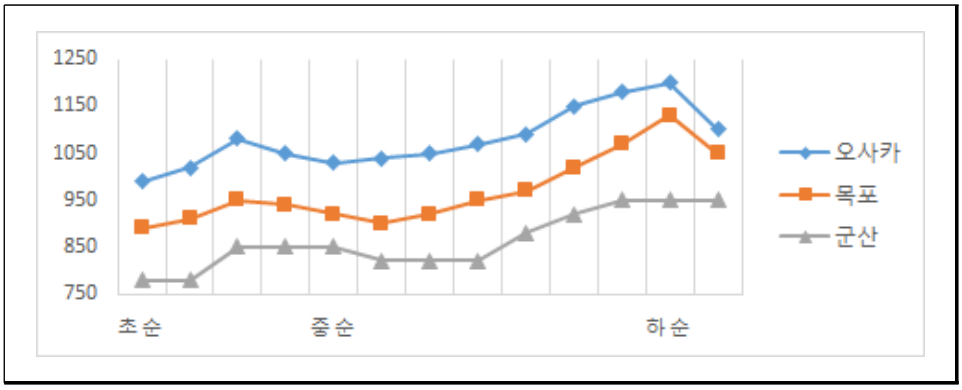
40) 『통상휘찬』 한국편 3, 朝鮮國平安外四道稻作景況(28年 10月 3日 在仁川領事館報告), 274-277면.

www.kci.go.kr

원래 인천의 시세는 보통 오사카 시세의 등락에 지배된다고 하지만 심리[人氣]의 작용은 매번 그 궤도 밖으로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 자세히 말하자면 **(오사카 시세가, 필자) 오르는 것에 따라서 심리의 작용은 오사카 시세와 비교해 예상 밖으로 (인천의 시세를, 필자) 등귀시키는 것과 같이 내릴 때에는 오사카 시세와 수지가 맞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층 하락을 초래하는 것이 보통이다.**[41]

게다가 인천의 미가는 오사카 미가에 의해 지배받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심리작용으로 인한 미가 변동의 폭이 훨씬 심하였다. 오사카 미가에 의한 지배는 다른 개항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단위 : 일본 錢)



〈그림 4〉 1899년 11월 오사카, 목포, 군산의 미가변화

비고 : 미가기준은 현미 1석. 목포는 포장[荷造]된 쌀, 군산은 포장하지 않은 쌀.
그래프의 수치는 〈부표 3〉에서 확인.

출전 : 『통상휘찬』 한국편 8, 「群山十一月商況(33年 1月 5日 在群山分館報告)」, 50면.

위의 그래프는 1899년 11월 동안 오사카, 목포, 군산의 미가를 비교한 것이다. 보이는 것처럼 미가는 한 달 사이에도 등락이 심하였지만, 그 와중에도 군산과 목포의 미가는 오사카의 미가를 따라 연동하는 모습을 보인다.

41) 『통상휘찬』 한국편 5, 「明治三十年六月中仁川商況報告(30年 9月 2日 在仁川領事館報告)」, 239면.

www.kci.go.kr

그러나 미가에는 오사카 시장의 영향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종종 오사카 시세와 맞지 않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는데 투기가 하나의 원인이었다. 1897년은 시세의 변동이 격심하였기 때문에 日商뿐만 아니라 韓商에 이르기까지 투기[思惑]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42] 특히 1898년에는 仁川米豆取引所[43]의 定期米[44] 시장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기가 발생하였다. 1897년 10월부터 오르기 시작한 인천의 미가는 1898년 들어서 오사카 시세와 관계없이 계속 고공행진을 하였다. 더욱이 작년에 작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매년 미곡이 점차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7월에 들어, 이후 미가가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한 일본인 미곡상들이 정기미 시장을 중심으로 매점전략을 펼치기 시작하였다. 이 때문에 오사카 미가가 하락세로 접어들었지만 인천의 미가는 투기의 영향으로 9월까지 고가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투기행위는 결국 9월 상순 거래 중지를 초래하였고, 10월에 매매당사자 양쪽이 모여 解合[45]하게 되었다.[46] 해합의 결과 미가가 폭락하여 비교적 많은 쌀을 가지고 있

42) 『통상휘찬』 한국편 6, 明治三十年中仁川港商況年報(續)(31年 8月 6日 在仁川領事館報告)」, 444면.

43) 인천미두취인소에 관하여는 김도형, 1992, 앞의 논문을 참조.

44) 인천미곡시장은 크게 定期米시장과 正米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기미는 일정한 限月 혹은 期日에 물품을 양도하기로 약속하고 거래하는 미곡을 말한다. 競賣買의 방법으로 매매를 약정하고 양도기일 전에는 轉賣나 되사기를 통해 매매차익을 수수해 결제를 종료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거래는 일반적으로 先物去來, 혹은 淸算去來라고 한다. 반면, 정미는 실제 현물로 거래되는 쌀을 말한다. (鳥栖忠安(김명수 옮김), 2015, 『인취성쇠기-미곡거래소 仁川米豆取引所의 흥망성쇠-』, 인천학연구원, 10면.)

45) 解合은 시장에서 불시의 사태나 買占 등으로 시세가 격변하여 매매계약에 의한 정상적 방법으로 결제가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에 사용하는 비상수단이다.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매당사자가 거래소에서 체결한 매매계약을 협의에 의해 일정한 가격을 정하고 借金決濟하여 해약하는 것이다. 해합은 매매계약의 전부에 걸치는가, 일부에 머무는가에 따라서 총해합과 일부해합으로 나뉜다. 또 매매당사자의 임의에 의해 성립하는 것을 임의해합, 감독기관이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성립시키는 것을 강제해합이라고 한다. 해합은 借金決濟制度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實物受渡制度에서는 성립될 수 없다. (『두산백과』)

46) 『통상휘찬』 한국편 8, 仁川三十一年中貿易年報(續) (32年 10月 5日 在仁川帝國領事館報告)」, 667-668면.

www.kci.go.kr

었던 한상들은 큰 손해를 보았고,[47] 인천미두취인소는 상업에 대혼란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10월 7일 일본영사관으로부터 해산명령이 내려졌다.[48]

다음으로 국내적 수요공급에 따라 미가가 변동하기도 하였다. 1893년 9월의 경우 2~3명의 미곡상이 부산항의 미가가 오사카보다 높아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부산으로 4,600여 俵[49]를 보냈다. 그런데 이번에는 新舊米가 교차되는 시기에 지방에서 햅쌀이 아직 인천으로 도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곡상들이 이처럼 다량의 미곡을 부산으로 보내자, 인천의 미곡이 부족해져 갑자기 上白米가 1석당 9엔 40센까지 폭등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부산으로 보낸 쌀 가운데 1,500여 표를 다시 돌려보냈다. 마침 그때 충청도에서 햅쌀이 인천에 도착하여 가격이 내려가면서 부산에서 돌아온 쌀을 다시 부산으로 돌려보냈다.[50] 1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도 미곡은 미가변동을 따라 수차례 개항장 사이를 왔다 갔다 한 것이다.

다음으로 방곡령의 실시[51]도 미가에 영향을 주었다. 이 시기의 방곡령은 실시되기 전에 예고를 하도록 바뀌었다. 1893년 10월 하순에도 1개월 후 방곡령을 실시한다는 발표가 있었다. 인천에서는 일본공사가 외아문과 담판하여, 일본상인 경우는 미곡매입을 허락하는 문서를 받아서 내륙에 들어가 미곡을 구입한 뒤 인천으로 수송할 수 있었다. 따라서 수출은 금지되었지만 내륙에서 개항장으로 미곡이 계속 출하되었다.[52] 게다가 방곡령이 실시되면 미곡판매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한 조선인 荷主들이 다투어 미곡판매에 나서면서 인천에서는 미가가 하락하였다.[53] 반면, 부산의 경우는 방곡령으로 개항장에 미곡공급이 끊길 것을 우려하여

47) 『통상휘찬』 한국편 8, 위의 사료, 668면.

48) 『韓國近代史資料集成』 6권, 四. 米豆取引所再設方元株式會社仁川米豆取引所株主惣代ヨリ出願ノ件 明治三十二年五月 (1) 仁川米豆取引所解散ノ件, 1898년 10월 20일. 이때 해산된 인천미두취인소는 일본상인들의 부흥운동에 의해 1899년 6월 다시 재인가를 받아 6월 19일부터 다시 영업을 개시하게 된다. 이에 대하여는 鳥栖忠安, 앞의 책, 27~45면 참조.

49) 俵는 일본식 가마니로 『통상휘찬』에는 그 양이 5두, 5두 5승, 8두, 조선두 16두, 조선두 20두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여기서는 5두 5승이 들어가는 가마니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50) 『통상휘찬』 한국편 1, 「明治二十六年中仁川港商況年報」, 515-516면.

51) 개항 이후 방곡령의 실시에 대하여는 하원호, 1997 앞의 책, 167-203면 참조.

52) 『통상휘찬』 한국편 1, 「本年十月中仁川港商況(26年 11月 25日 在仁川領事館報告)」, 729면.

www.kci.go.kr

일시적으로 미가가 상승하였다.[54]

이와 반대로 1894년 6월에는 동학농민전쟁과 청일전쟁의 영향 때문에 인천에서 商路가 두절되어 미곡의 출하량이 크게 감소하였다.[55] 그러나 같은 시기 부산에서는 동학농민전쟁이 활발해지면서 관청의 창고가 약탈당하는 것을 두려워한 전라도의 지방관들이 수세한 미곡을 부산으로 수송하였기 때문에 오히려 미곡의 양이 늘어났다.[56] 이처럼 같은 사건도 지역의 상황에 따라 미가에 전혀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었다.

이밖에도 조선과 일본이 아닌 제3국의 미곡이 조선의 미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었다. 1894년에는 조선의 기근을 구휼한다는 명목으로 6월 3일을 기한으로 하여 淸國米가 무관세로 수입되었다.[57] 조선의 구휼에만 사용되었어야 할 청국미는 가격조건에 따라 오사카까지 흘러들어 가 오사카 미가를 하락시켰고, 그 결과 부산항에서는 대일 미곡수출이 한때 중단되기도 하였다.[58] 1897년의 경우 인도의 대기근으로 대량의 태국미[暹羅米]가 인도지역의 수요에 공급되었다. 그러자 원래 태국미를 공급받고 있었던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공급이 부족해졌고 그 결과 블라디보스토크로 조선미의 수출이 늘어났다.[59]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가의 단기변동은 계절변화, 국내외 정치경제상황, 흉풍, 투기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였다. 게다가 각각의 요소들은 개별적으로 작용된 것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1897년 9월 이후 인천항의 사례는 복합적 요인에 의해 빠르게 변하는 미가의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

53) 『통상휘찬』 한국편 1, 「明治二十六年中仁川港商況年報」, 515-516면.

54) 『통상휘찬』 한국편 1, 二十六年十一月中釜山港ノ商況(26年 12月 28日 在釜山總領事館報告)」, 741면.

55) 『통상휘찬』 한국편 1, 二十七年六月中仁川港商況(27年 8月 13日 在仁川領事館報告) , 485면.

56) 『통상휘찬』 한국편 1, 釜山港輸入米ノ景況(27년 6월 2일 在釜山總領事館報告)」, 384-385면.

57) 『통상휘찬』 한국편 1, 仁川港ニ於ケル支那米輸入ノ景況(27年 5月 24日 在仁川領事館報告)」, 398-407면.

58) 『통상휘찬』 한국편 1, 「二十七年四月中釜山港商況(27年 5月 30日 在釜山總領事館報告)」, 390면.

59) 『통상휘찬』 한국편 5, 明治三十年三月中仁川商況(30年 5月 10日 在仁川領事館報告) , 61면.

www.kci.go.kr

다. 1897년 9월 인천에 '일본의 미가가 폭등하여 미곡거래가 대단한 호황을 보인다'는 전보가 들어왔다. 그러자 인천의 시장심리가 갑자기 활발해져 재고로 쌓여있던 미곡이 수출되기 시작하였고, 또 9월 13일에 평안도에서 들어온 햅쌀도 대단히 좋은 가격으로 거래되었다.

이때부터 11월까지 시세는 약간 오르내림이 있었지만 미가는 대체적으로 상승하여 겨우 1개월 사이에 1엔 이상 폭등하였다. 이러한 미가폭등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미가가 상승하면서 조선미의 수요가 늘어났던 것에 의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조선에서 올해 米作이 충분하지 않다는 소문이 있어서 햅쌀의 출하가 활발하지 않았던 것과 탁지부 고문관 브라운(J. Mcleavy Brown)의 해임문제[60] 때문에 韓英關係가 나빠져 동양에 위기가 닥쳐왔다는 소문 역시 미가의 등귀를 불러온 원인이었다.[61]

그러나 11월 하순부터 12월 초순까지 오사카 시세가 좋지 않다는 전보가 계속 전해지면서 시세가 하락하였다. 반면 서울에서는 미곡의 공급이 부족하여 서울의 미가가 치솟았다. 또 한강입구가 결빙되는 시점도 다가오면서 12월 7~8일 경부터 갑자기 사려는 심리가 생겨 인천의 시세가 30센 이상 상승하였다. 하지만 15~16일 무렵에 이르면 서울에도 일시에 많은 양이 출하되어 점차 재고가 쌓이게 되었다. 따라서 미가가 하락하였고, 동시에 일본 상황도 계속 좋지 않아 일본 상인은 다시 매입을 미루는 상황으로 되돌아갔다.

이후 미곡수출이 활발하다는 소식을 들었던 한상들이 미곡을 가지고 활발하게 입항하였다. 그러나 한상들이 높은 가격을 불렀기 때문에 미곡은 쉽게 판매되지 않았다. 다만, 17~18일 전후에는 간간히 20~30센 정도 저렴한 가격에 약간의 거래가 있었는데, 20일 전후에 이르러 시세가 거의 1엔 정도 하락하자 한상은 더욱

60) 브라운의 교체는 1897년 당시 러시아의 한반도 진출과 대한제국정부의 친러정책에 의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는 김현숙, 2008『근대 한국의 서양인 고문관들』, 한국연구원, 353-391면 참조.

61) 『통상휘찬』 한국편 6, 明治三十年中仁川港商況年報(續)(31年 8月 6日 在仁川領事館報告)」, 444면.

www.kci.go.kr

더 판매를 꺼렸다. 22~23일에도 가끔씩 지난 11월의 높은 가격을 듣고 대량의 미곡이 입항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시세가 폭락한 것에 놀라 판매를 꺼리며 모두 재고가 되었다. 결국 인천의 재고미가 수 만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그 후에도 한상과 일상 모두 투기로 매매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오사카 시세가 계속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의 시세는 비교적 떨어지지 않았다.[62]

이렇게 인천의 미가는 오사카 시세뿐만 아니라 서울의 미가에도 영향을 받으며 며칠사이에도 오르내림이 교차되고 있었다. 또 시세가 낮아 이익을 볼 수 없을 때에는 미가의 상승을 기대하며 투기매매도 발생하고 있었고, 정치적 변동에 따른 영향도 있었다. 이처럼 당시 미가는 1달 사이에 1엔 가량 폭등하기도 하고, 며칠사이에도 등락이 바뀌는 등 변화의 정도가 매우 심하였다.

반면, 1년 가까이 하락세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1898년 9월 이후 하락하기 시작한 미가는 1899년에 들어서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약간의 등락이 있기는 하였지만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형세였다. 그런데 미곡을 가지고 있는 한상들은 작년의 높은 미가를 기억하며 시간이 지나면 미가가 다시 등귀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결코 미곡을 싼값에 판매하지 않았다. 그러나 8월에 이르도록 미가가 계속 하락하자 결국 한상도 의지가 꺾이기 시작하였고, 일부 상인의 경우는 미곡을 장기보관하면서 손해가 나는 경우도 있었다.[63]

그런데 9월을 넘어가면서 상황이 반전되어 미가가 급속히 회복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상인들이 미곡 매입에 나서는 대로 한상들이 미곡을 판매하여, 미곡시장은 매우 활기를 띠게 되었다. 이후 미가가 계속 상승하면서 창고에 저장되어 있던 미곡은 순식간에 일본으로 수출되었고, 햅쌀이 출하되기에 이르자 미곡시장은 전에 없던 성황을 보였다. 그래서 여러 滊船會社에서도 臨時船을 증편하였지만 오히려 배가 부족한 상황이었다.[64] 1년 정도 지속된 하락세가 갑자기 반등하여 미곡 수출이

62) 『통상휘찬』 한국편 5, 三十年十二月中仁川商況(31年 2月 19日 在仁川領事館事務代理幣原喜□郎報告)」, 558-560면.

63) 『통상휘찬』 한국편 8, 仁川三十二年貿易年報(33年 5月 24日 在仁川領事館報告) , 227-228면.

64) 『통상휘찬』 한국편 8, 위의 사료, 229면.

www.kci.go.kr

대성황을 보이면서 수출을 위한 기선이 부족한 상황에까지 이른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개항장의 미가는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그 변화를 예측하기 매우 어려웠다. 특히 외국과의 수출입무역은 국내미가에 지배적인 영향을 끼치면서 미가의 단기변동을 더욱 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단기변동의 심한 시장 환경은 보통 대자본가에게 유리하다. 자본금을 활용해 시간차에 의한 유통이윤을 확보하고 투기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소상인과 비교할 때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65]

3. 仁川郵船會社의 미곡매매

개항장에서 일본으로 미곡을 수출하는 것은 대부분 日商들이 담당하였다. 일상들은 조금이라도 싼 가격에 미곡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지로 들어가서 미곡을 매입하려고 하였다.[66] 韓商도 내지유통에 대한 강점을 바탕으로 생산지에서 개항장으로 미곡을 운반하여 이익을 거두었다. 그 과정에서 생산지의 미곡을 확보하기 위한 한상과 일상의 경쟁이나, 개항장에서 조금이라도 높은 가격을 받으려는 한상과 싸게 미곡을 구입하려는 일상의 대립이 존재하였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미곡수출을 위한 분업구조가 형성되어 있었고, 그 속에서 한상은 산지와 개항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면서 이윤을 추구할 수 있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개항장의 미곡시장은 불확실성이 크고 변화의 속도가 빨랐기 때문에 리스크가 큰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이 시기에 도쿄와 부산의 은행 이자율의 차이는 대체로 6% 이상 차이가 났다.[67] 리스크가 크다는 것

65) 당시 개항장과 서울에 형성되었던 화폐시장 역시 단기변동이 매우 심하였다. 이는 은행을 통해 화폐수급을 조절할 수 있었던 대자본가들에게 투기적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위험하면서도 매력적인 시장 환경을 제공하였다. 단기변동과 대자본가의 이윤추구에 대하여는 김윤희, 앞의 책, 149~184면을 참조.

66) 미곡 매입을 위한 日商의 내지침투에 대하여는 하원호, 앞의 책, 131-161면 참조.

www.kci.go.kr

은 바꾸어 말하면 그 만큼 성공했을 때에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때문에 미곡무역은 리스크 극복에 유리하였던 대자본가들에게 매우 매력적이었다.

이제 당시 미곡무역에 참여하였던 상인의 일기를 통해 당시 대자본가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리스크를 극복하고 상업적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荷齋日記』에는 1900년 燔磁會社의 社員 池圭植[68]이 인천과 군산을 오가며 행했던 미곡무역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1900년 9월 15일 지규식은 仁川郵船會社[69](이하 우선회사) 主事 安永基의 부탁을 받아 우선회사가 주도하는 미곡무역에 참가하기로 결정하였다.[70] 해당 시기의 『하재일기』에서 미곡무역과 관련된 내용을 뽑아 날짜별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표 2〉 1900년 지규식의 미곡무역

날 짜	활 동 내 용	음력날짜[71]
9월 26일	군산항 主人 河天泓에게 紙錢 332원, 백동화 2000원, 單絲 20자[尺]을 주어 논산에서 쌀을 사도록 함.	윤8월 3일
9월 27일	인천 출발.	윤8월 4일
9월 28일	군산 도착.	윤8월 5일
9월 30일	군산항과 논산의 미가를 인천우선회사에 편지로 보고.	윤8월 7일

67) 김대현, 2012 「한국 근대의 금융과 투자」,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박사학위 논문, 24면.

68) 지규식은 궁궐에 자기를 납품하던 分院의 貢人 출신으로 미곡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던 상인은 아니었다. 지규식에 대하여는 박은숙, 2009 「分院 貢人 池圭植의 공·사적 인간관계 분석」, 『한국인물사연구』 11, 한국인물사연구소; 김소영, 2013 「전통과 근대를 살아간 인물, 荷齋 池圭植의 '일상'을 통해 본 그의 사상과 종교」, 『한국인물사연구』 19, 한국인물사연구소를 참조.

69) 仁川郵船會社는 大韓協同郵船會社라고도 한다. 1900년 7월 李允用, 李泳均, 安永基 등이 通信院의 특허를 얻어 자본금 3만원으로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 利運社의 선박이던 利運號(潮洲府號), 顯益號, 蒼龍號를 15만원에 구입하고 海龍號를 임대하여 우편물을 수송하였다. 이운사를 계승한 官辦輪船會社를 자처하였으며, 본점은 인천에 두고 각지에 대리점과 지사, 기지를 두었다. (전우용, 2011 『한국 회사의 탄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145면)

70)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09 『國譯 荷齋日記』 5, 171면. 『國譯 荷齋日記』의 날짜는 음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편의상 양력으로 바꾸어 서술하도록 하겠다.

www.kci.go.kr

10월 10일	金聲遠이 백동화 160원을 엽전으로 바꾸기 위해 강경으로 떠남. 미곡 매입 시작.	윤8월 17일
10월 11일	인천우선회사에 편지로 보고. 蒼龍船이 내일 인천에서 출발한다는 전보를 받음.	윤8월 18일
10월 12일	인천우편회사에서 10월 3일과 4일에 보낸 편지 2통이 도착, '인천항의 미가가 石당 32~33냥이고 값이 점차 떨어지니 기회를 보아 주선하라'는 내용.	윤8월 19일
10월 14일	인천우선회사의 참봉 金禧默이 창룡선을 타고 쌀을 사러 옴. 그에게 인천항의 시세와 군산항의 시세가 같다는 말을 듣고 손해를 우려.	윤8월 21일
10월 16일	일본인이 쌀을 사서 미가가 올랐기 때문에 미곡매입을 중지.	윤8월 23일
10월 17일	김성원을 강경에 보내서 미곡매입을 독촉.	윤8월 24일
10월 18일	하루 종일 미곡을 매입. 김성원이 강경에서 61가마니[叭]을 싣고 옴.	윤8월 25일
10월 19일	엽전이 떨어져 미곡매입 중지. 顯益船이 부산항을 출발하여 23일에 군산항에 온다는 전보를 받음.	윤8월 26일
10월 20일	논산에 머무는 참봉 김희묵에게 현익선의 소식을 편지로 알림.	윤8월 27일
10월 21일	김성원을 강경에 보내서 미곡매입을 독촉.	윤8월 28일
10월 22일	쌀 28가마니[叭] 구입.	윤8월 29일
10월 23일	현익선이 군산항에 도착.	9월 1일
10월 24일	참봉 김희묵이 백미 317가마니[叭]을 받아서 현익선을 타고 출발.	9월 2일
10월 27일	判官 하천홍이 서울에서 내려옴, 副尉 李泳均이 '池哥가 한 달이 넘도록 시일을 끌고 있으니 돈이든 곡식이든 속히 결말을 지어 올려 보내라'는 말을 했다고 함. 김성원이 강경에서 돌아와 '미곡매입이 부족하여 실어오지 못하였으나 조만간 운반해 오겠다'고 함.	9월 5일
10월 29일	김성원이 강경에 감.	9월 7일
11월 1일	창룡선이 목포에서 내일 군산에 도착한다는 전보를 받음.	9월 10일
11월 2일	창룡선이 도착하였지만, 김성원이 강경에서 오지 않음. 판관 하천홍이 설득하여 며칠을 더 기다리기로 함. 인천우편회사에 편지로 보고.	9월 11일
11월 4일	군산을 떠나 강경에 감. 김성원이 논산에 가서 만나지 못 함.	9월 13일
11월 5일	김성원이 강경에 도착. 쌀 80가마니[叭]가 강경에 도착하여 군산항으로 보냄.	9월 14일

www.kci.go.kr

11월 7일	강경을 떠나 군산에 도착. 현익선이 인천항에서 군산항에 도착.	9월 16일
11월 8일	인천우선회사의 편지가 도착.	9월 17일
11월 10일	인천에서 내려온다는 화륜선이 도착하지 않음.	9월 19일
11월 11일	미곡 매입은 모두 415가마니[叭]로 값은 44,199냥, 그 외에 각종 잡비가 5,260여냥, 主人에게 9,798냥 6전을 회계함. 白川丸이 인천에서 내려옴.	9월 20일
11월 12일	白川丸이 인천이 아닌 長崎로 출발, 돌아갈 일정이 늦어짐.	9월 21일
11월 14일	景寶丸을 타고 군산에서 출발.	9월 23일
11월 15일	인천에 도착.	9월 24일
11월 16일	인천우선회사를 방문하여 미곡무역을 마무리.	9월 25일

출전 :『國譯 荷齋日記』6

지규식은 9월 27일에 인천항을 떠나 다음날 군산에 도착하였다. 미곡의 매입은 12일 후인 10월 10일에 시작하여 11월 5일까지 27일 동안 이루어졌다. 그는 강경, 논산 등지에서 쌀을 매입한 뒤 일단 군산으로 보냈고, 그곳에 도착하는 기선을 통하여 인천으로 수송하였다. 매입한 쌀의 양은 모두 415가마니[叭], 4만 4,199냥이었다. 아쉽게도 이를 통해 우선회사가 얼마나 이익을 얻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다. 미곡매입을 마친 지규식은 11월 15일에 인천에 도착했고, 다음 날 우선회사를 방문하여 무곡무역을 마무리하였다.[72)]

왜 인천우선회사는 미곡을 매입하기 위해 군산을 선택한 것일까? 개항 초기 미곡무역은 이익이 많은 사업으로 쌀 1석당 1엔 이상의 이득을 거두었다. 그러나 1890년부터 1석에 50센으로 하락하였고 1895년에는 보통 1석당 10센 혹은 20센의 이득을 보면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었다.[73)] 그러나 1900년의 군산항은 이와 상황이 달랐다.

71)『國譯 荷齋日記』6권에 실린 음력 날짜이다.

72) 지규식의 미곡무역에 대한 전반적 상황은 박은숙, 2009「해제」,『國譯 荷齋日記』6,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9~11면을 참조하였다.

73)『漢城新報』, 1895년 10월 1일, 잡보 米産地に派出所を設るの必要」.

www.kci.go.kr

오사카 시세와 (군산항의) 차이는 1엔 50센 내외가 표준이다. 원래 당국 각 개항장의 미곡상 가운데 부산항과 같은 경우는 오사카 시세와 같은 가격으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투기매매 혹은 일시적인 금융압박에 몰리는 경우도 적지 않은 등 진실로 薄利를 다툰다. 수출량이 많아도 비교적 그 실익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군산항과 같은 경우 1석당 1엔 가량의 순익을 보는 것이 20년 전의 부산항을 상기시킨다는 말이 있다.**[74]

위 사료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군산항은 1899년 새로 개항한 곳으로 다른 개항장에 비하여 미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상태였다. 군산항에서 쌀을 구입하여 미가가 비싼 인천항에 판매하거나 일본으로 직접 수출할 경우 많은 이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일상들은 물론이고 우선회사도 군산에서 미곡을 구입하려고 한 것이다.

우선회사와 지규식의 미곡무역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첫째, 우선회사는 李允用이 설립한 官辦輪船會社로 대한제국 정부와 깊은 관계가 있다. 따라서 지규식의 미곡무역은 정부권력을 등에 업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상인에 비해 훨씬 수월한 미곡매입이 보장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우선회사는 지규식의 미곡매입 상황을 郵便과 人便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우선회사는 지규식이 군산에 도착하자 바로 2통의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11월 8일에도 우선회사에서 보낸 편지가 지규식에게 도착하였다. 인편으로는 10월 14일 김희묵과 24일 하천홍을 보내 소식을 전달하였다. 지규식도 군산도착(9월 30일), 미곡매입시작(10월 11일), 일정지체(11월 2일) 등 미곡매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즉시 편지로 보고하였다. 그리고 자신 역시 두 차례 김성원을 강경에 보내 미곡매입을 독촉하였고,(10월 17일, 21일) 미곡매입이 늦어지자 직접 강경을 방문하여 매입상황을 살피기도 하였다.(11월 4일) 이와 같이 우선회사는 지규식의 미곡매입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신경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셋째, 우선회사와 지규식은 미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우선회사는 지규식이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자 즉시 인천의 미가를 지규식에게 통보했고, 이후 인천의 미가와 군산의 미가에 차이가 없어지자 이 역시 김희묵을 보내 지규식에게

74) 『통상휘찬』 한국편 8, 「群山市況(33年 12月 18日 在群山帝國領事館分館報告)」, 523면.

www.kci.go.kr

알렸다. 지규식도 인천과 군산의 마가가 같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매입한 쌀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탄식하기도 하였고, 일본인의 미곡매입[75]으로 미가가 상승하자 미곡매입을 일시 중단하기도 하였다.

특히 우선회사에서는 지규식이 인천을 출발한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곡식이든, 돈이든 빨리 매입을 마치도록 재촉하였다. 이는 회사에서 단기간 안에 이익을 보고자하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는 義和團事件 이후 침체에 빠졌던 인천미곡 수출이 10월 들어 점차 활기를 띠기 시작하자[76]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미곡매입을 재촉한 것으로 보인다.[77] 이처럼 우선회사와 지규식은 미가의 변동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미곡매입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규식은 전신을 통해 군산으로 들어오는 기선의 상황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우선회사의 미곡무역은 1)국가권력을 바탕으로, 2)군산과 인천의 미가변동과 매입상황을 예의주시하며, 3)기선의 확보에도 유의하며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급변하는 시장상황 속에서 이윤을 내기 위하여 적응한 결과로 보인다. 그리고 당시 미곡상이 미곡을 매매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해야 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 위와 같이 할 수 없었던 중소상인들은 어떠했을까? 갑오개혁 이후 外劃을 통한 租稅換送이 일반화[78] 되면서 많은 상인들이 상납전을 활용하여 貿穀을 하는 경우가 늘어났다.[79] 그런 상인들 가운데는 白南信,[80] 金允蘭[81] 같은 대자본가도 있

75) 일본인들의 미곡매입이 활발해진 것은 1900년 9월부터 大阪商船會社 소속인 白川丸이 군산에 임시기항하기 시작하면서 일본으로 직접 수출이 용이해 진 것과 관련이 있다(『통상휘찬』 한국편 8, 위의 사료, 523면).

76) 『통상휘찬』 한국편 8, 「仁川三十三年第四季貿易(34年 3月 15日 在仁川帝國領事館報告)」, 696면.

77) 실제로 11월에 들어 오카사시세가 하락하면서 인천의 米況도 위축되었다(『통상휘찬』 한국편 8, 위의 사료, 697면).

78) 갑오개혁 이후 조세상납에서 환송이 일반화되는 경향에 대해서는 정희찬, 2011 갑오개혁기(1894~96년)상납 건체(愆滯) 문제와 공전(公錢)의 환송(換送)」, 『韓國史論』 57,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참조.

79) 상인들의 상납전 활용에 대해서는 吳斗煥, 1991 『韓國近代貨幣史』, 社團法人 韓國硏究院,

www.kci.go.kr

었지만 奸鄕猾吏落科失業者, 各郡出坐派亂類, 奸細以商爲名輩[82] 등으로 지칭되는 다수의 중소상인들이 조세환송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경우 아래의 사례들에서 보이듯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다.

開城府尹 權用國씨의 公報를 보니 警部에셔 度支部照會에 따라 개성부상인 姜福源 等 7명을 붙잡아 올린 것 때문에 상인 수백 명이 소장을 올렸다. **廛民 朴衡正이 載寧郡의 공전을 외획하여 쌀장사를 하다가 손해를 입은 것을 무고한 백성들에게 거두려고 하니** 장사하는 법에 주고받는 것이 분명한데, 포흠된 공전을 이렇게 함부로 징수하면 장사할 방법이 없다고 하면서 각 시전의 상인들이 撤市하여 사방으로 흩어지니 사정이 매우 심각하다고 하더라.[83]

각 군 상납전들을 각 상민들이 외획하여 외국 상민들에게 팔기 위해 쌀을 몇 千석 몇 百석씩 사서 연해 각 처에 쌓아두었으나, 외국 상인들이 하나도 사려는 사람이 없고 탁지부에서는 상납을 성화와 같이 재촉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 **쌀들을 모두 경강으로 실어서 올라 왔는데, 오강에 지금 쌓여 있는 쌀이 14만 여석이 되어 쌀값이 시시때때로 떨어져서 1되에 엽전 3~4돈씩 넘지 않을 것이라고 공론이 자자하다.**[84]

남쪽에서 온 친구가 전하는 것을 들으니 호남, 호서 연해 각 郡에 해일이 일어나 인명과 가옥과 미곡과 재산을 모두 잃어버린 것을 보았는데 … **모 관찰사, 모 군수, 모 서기, 모 차인이 결전을 모아서 이익을 보려고 미곡을 사서 몇 만 석을 포구에 쌓아두고 서울 시장에서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려 春帆에 실어오려고 하였다. 그런데**

157~167면; 하원호, 앞의 책, 160-167면 참조.

80) 白南信에 대하여는 오미일, 2014 「관부물자 조달과 수세청부로 자본 축적한 백남신 백인기 부자」, 『근대 한국의 자본가들 : 민영휘에서 안희제까지, 부산에서 평양까지』, 푸른역사 참조.

81) 『訓令存(編)案』 5, 1899년 7월 25일, 「訓令」(度支部 → 慶南北觀察使) "…대구의 상인으로 公錢을 挪劃하여 장사를 하는 자가 70~80명인데, 金允蘭, 鄭孝先, 徐允瑞, 李泰模, 姜寅初 등이 가장 큰 상인으로 각자 포흠한 공전이 족히 100만 냥은 됩니다. 또 부산항의 일본은행에 쌓아둔 엽전이 지금 70만 냥인데…."

82) 『공문편안』 78, 1897년 7월 30일, 九號 質稟(咸鏡北道觀察使 元禹常 → 度支部).

83) 『황성신문』, 1901년 4월 27일, 「잡보 開城民訴」.

84) 『독립신문』, 1899년 9월 15일, 「곡가지흘」

www.kci.go.kr

그들이 公을 버리고 私를 취하는 것을 해신이 노여워해서 삽시간에 水國으로 가지고 갔으니 그 結錢의 영수증은 수국에서 받아와야 할 것이다.[85]

해당 차인들이 비단 한번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두세 번 장사를 하여 시일을 넘기고 만약 손해를 입어서 본전이 줄어들면 도망치는 자가 종종 있어서….[86]

게다가 미가 폭등으로 큰 이익을 본 미곡상들이 상납전을 가지고 미곡투기에 나섰다가 큰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었다.

작년(1898) 미가가 등귀하던 시기에 폭리를 차지한 한국의 미곡상들이 함께 지방조세를 어음의 자금[爲替資金]으로 하여 미곡을 투기매입[見込買]한 것이 거액이다. 이들은 서로 일치하여 시기를 기다려 판매하여서 일시에 해당 지방의 미가를 좌우하려고 한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위의 상황과 달리 보통 (수출에) 맞지 않는 시세를 보였다. 이러한 경향은 몇 개월이 지나도 멈추지 않아 이 때문에 시장은 더욱 한산하였다. 그러나 봄 이후 가뭄의 기색이 있고, 모내기가 곤란한 곳, 보리농사가 가뭄 때문에 좋지 않은 곳과 함께 작년 겨울 해일 때문에 침수된 지방에서는 모내기할 모가 고사하는 등 여러 가지로 미곡상들의 意氣를 강하게 하는 사정이 있었다. … 그러나 이후 비가 순조롭고 모의 발육이 매우 좋을 뿐만 아니라 예년에 피할 수 없었던 충해도 없이 장마가 지나고 무더위에 들어갔다. 농사의 전망은 점점 풍년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확실하여 대세는 더욱 미가의 하락을 촉진하였지만, 반대로 이들 가운데서는 납세금연기의 탄원을 몇 번이나 거듭하여 … 또 서서히 햅쌀이 출하되는 시기가 닥쳐오는 요즘에는 거의 進退維谷의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몇 개월 동안의 술책이 그림의 떡으로 돌아가 벌써 하루를 지속할 수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 때문에 혹자는 일시적으로 회피하는 방법을 마련하여 … 일본 상인의 창고를 빌려서 (쌀을) 보관한 증서를 저당으로 두고 높은 이자의 자금을 융통하는 자도 있지만 미봉책을 다 사용하여 (손해를 보고) 판매하기도 한다. 또는 韓船을 빌려서 경성으로 (쌀을) 보내는 자도 있다. … 이와 같이 형세는 크게 변하였기 때문에 작년 가을 이후 곤란을 느끼고 있었던 미곡거래는 차츰 좋은 기운을 띠고 점차 예전의 상태를 회복하는 상황이지만 반대로 이러한 결과는 韓商사이에서는 대단한 공황의 원인이 되어서 이전에 크게 목포항에서 거래를 하던 상인 가운데 파산에 이르는 자가 한 둘에 그치지 않을 형세가 되었다.[87]

85) 『황성신문』, 1899년 2월 18일, 잡보 南郡傳信」.

86) 『황성신문』, 1899년 3월 1일, 잡보 「公錢貿穀」.

87) 『통상휘찬』 한국편 7, 「木浦五,六月商況(32年 9月 12日 在木浦帝國領事館報告)」, 482면.

www.kci.go.kr

목포의 일부 미곡상들이 상납금으로 미곡을 대량으로 투기매입한 뒤 미곡이 오를 때를 기다려 큰 이득을 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이들의 예상과는 반대로 작황이 좋아 미가가 생각만큼 오르지 않으면서 큰 낭패를 본 것이다. 이밖에도 무곡을 하려다 해일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자 빚을 갚을 수 없어 자살하는 경우도 있었다.[88] 중소상인들은 장기보관, 기선의 확보, 물가정보의 획득, 자본력 등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1장에서 살펴보았던 미가의 단기변동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상당수의 중소상인들은 미곡매매를 통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점은 1902~1904년 내장원의 대규모 外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당시 내장원에서 외획을 위해 督刷官·檢稅官 등을 파견하자, 각 지역의 많은 상인이 하위 파트너로 참여하였다.[89] 위와 같은 시장구조 속에서 중소상인들은 각자도생보다는 대자본-국가권력(황실 및 고위관료)의 구조에 편승하는 편이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다. 개항장의 미곡시장에는 중소상인에게는 위험하고, 국가권력과 결탁된 소수의 대자본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조선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된 형성된 개항장은 국가의 권력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든 영역이었기 때문에 마치 자유주의시장경제와 유사한 형태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가운데 당시 개항장의 미곡시장은 다양한 요소들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변동이 매우 빠르고 심하였다. 특히 대량의 미곡이 오사카로 수출되면서 미가가 해외시장과 연동하기 시작한 것은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시장상황에 대한 예측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 또 변화의 속도도 빨라 약간의 시간차이로 이익과 손해가 갈라졌다. 달리 말하면, 1) 값이 쌀 때 사서 값이 오를 때까지 저장할 수 있는 창고, 2) 이윤이 나는 지역으로 빠르게 미곡을 운반할 수 있는 기선의 확보, 3) 전보를 통한 신속하게 미가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 4) 이를 확보할 수 있는 자

88) 『황성신문』, 1899년 2월 13일, 잡보 「避債泉臺」.

89) 이영호, 2001 『한국근대 지세제도와 농민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497~501면.

www.kci.go.kr

본력, 그리고 5)원활한 상업 활동을 보장해줄 수 있는 권력의 보호여부에 따라 이익과 손해가 결정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반면, 이러한 조건들을 확보할 수 없었던 중소상인들에게 당시 미곡시장은 오히려 손해를 보기 쉬운 환경이었다.

4. 결 론

조선이 자본주의 세계체제에 편입된 형성된 개항장은 국가의 권력이 영향력을 발휘하기 힘든 영역이었기 때문에 마치 자유주의시장경제와 유사한 형태의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 가운데 미곡수출이 본격화된 1890년 이후 개항장의 미가는 계절의 변화, 오사카 미가, 국내의 수요, 투기, 방곡령의 실시, 국내외의 정치적 변동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단기변동이 매우 심하였다. 1달 사이에 1엔 가량 폭등하기도 하고 며칠사이에도 등락이 바뀌는 등 변화가 매우 빠른 시기도 있는가하면, 1년 가까이 하락세가 지속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개항장의 미가는 불확실성이 매우 커서 그 변화를 예측하기 매우 어려웠다. 특히 대량의 미곡이 오사카로 수출되면서 미가가 해외시장과 연동하기 시작한 것은 불확실성을 더욱 증폭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시장상황에 대한 예측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또 변화의 속도도 빨라 약간의 시간차이로 이익과 손해가 갈라졌다. 이렇게 단기변동이 심한 시장 환경은 보통 대자본가에게 유리하다. 자본금을 활용해 시간차에 의한 유통이윤을 확보하고 투기에 따른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소상인과 비교할 때 훨씬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상황에 대응하여 인천우선회사의 미곡매매는 1)국가권력을 바탕으로, 2)군산과 인천의 미가변동과 매입상황을 예의주시하며, 3)기선의 확보에도 유의하며 이루어졌다. 이는 급변하는 시장상황 속에서 이윤을 내기 위하여 적응한 결과다. 동시에 당시 미곡상이 미곡을 매매할 때에 어떤 방식으로 활동을 해야 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반면, 중소상인들은 장기보관, 기선의 확보, 물가정보의 획득, 자본력 등에서 절

www.kci.go.kr

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당시 미가의 단기변동에 적응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상당수의 중소상인들은 미곡매매를 통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즉, 개항장의 미곡시장에는 중소상인에게는 위험하고, 국가권력과 결탁된 소수의 대자본에게는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장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

논문투고일(2016. 10. 29), 심사일(2016. 11. 29), 게재확정일(2016. 12. 4)

www.kci.go.kr

참고문헌

〈단행본〉

김경태, 1994『한국 근대 경제사 연구』, 창작과비평사
김윤희, 2012『근대 동아시아와 한국 자본주의 -공생과 독점, 이중지향의 자본축적-』, 高麗大學校 民族文化硏究院
김현숙, 2008『근대 한국의 서양인 고문관들』, 한국연구원
전우용, 2011『한국 회사의 탄생』,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鳥栖忠安(김명수 옮김), 2015『인취성쇠기 -미곡거래소 仁川米豆取引所의 흥망성쇠-』, 인천학연구원
吳斗煥, 1991『韓國近代貨幣史』, 社團法人 韓國硏究院
이영호, 2001『한국근대 지세제도와 농민운동』, 서울대학교출판부
村上勝彦(정문종 옮김), 1984『식민지 -일본 산업혁명과 식민지 조선』, 도서출판 한울
하원호, 1997『한국근대 경제사연구』, 신서원
韓沽劤, 2001『韓國開港期의 商業硏究』, 한국학술정보(주)

〈논문〉

姜德相, 1962「李氏朝鮮開港直後に於ける朝日貿易の展開」,『歷史學硏究』265, 歷史學硏究會
吉野誠, 1975「朝鮮開國後の米穀輸出について」,『朝鮮史硏究會論文集』12, 朝鮮史硏究會
_____, 1978「李朝末期における米穀輸出の展開と防穀令」,『朝鮮史硏究會論文集』15, 朝鮮史硏究會
김대현, 2012「한국 근대의 금융과 투자」,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제학부 박사학위 논문
김소영, 2013「전통과 근대를 살아간 인물, 荷齋 池圭植의 '일상'을 통해 본 그의 사상과 종교」,『한국인물사연구』19, 한국인물사연구소
김도형, 1992「갑오 이후 인천에서의 미곡유통구조 -「인천미두취인소」의 설립을 중심으로-」,『擇窩許善道先生停年記念韓國史學論叢』, 일조각
박은숙, 2009「分院 貢人 池圭植의 공·사적 인간관계 분석」,『한국인물사연구』11, 한국인물사연구소

www.kci.go.kr

오미일, 2014「관부물자 조달과 수세청부로 자본 축적한 백남신·백인기 부자」,『근대 한국의 자본가들 : 민영휘에서 안희제까지, 부산에서 평양까지』, 푸른역사
이헌창, 2000「1882~1910년간 서울시장의 변동」,『서울상업사연구』, 서울학연구소
정희찬, 2011「갑오개혁기(1894~96년)상납 건체(愆滯) 문제와 공전(公錢)의 환송(換送)」,『韓國史論』57,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崔柳吉, 1973「李朝開港直後의 朝日貿易의 動向」,『아세아연구』15-3, 아세아문제연구소
崔泰鎬, 1992「開港期의 貿易構造와 貿易物價에 관한 硏究 -開港期의 穀·綿交易體制를 中心으로-」,『擇窩許善道先生停年記念韓國史學論叢』, 일조각
하원호, 2006「개항후 인천의 대외무역과 그 영향」,『한국민족운동사연구』47, 한국민족운동사학회

www.kci.go.kr

Abstract

Short-term fluctuations of the rice prices and cases of rice trading in the open-port area after 1890

Kim Kisung

Since 1890, when the rice export became regularized, the rice price in the open-port area fluctuated in a short period of time due to various reasons such as seasonal changes, rice price in Osaka, domestic demand, speculation, the enforcement of the Grain Export Prohibition(防穀令), and domestic and foreign political change. There were periods of rapid changes when the price rose rapidly by 1 Yen during a month, or the price changed up and down in a few days, and also there were cases in which a downturn lasted for nearly a year. In this way, rice prices in the open-port area were very uncertain, making it difficult to predict the changes. Especially, when the large quantity of rice began to be exported to Osaka, rice price started to be linked with overseas markets and it played a crucial role in amplifying uncertainty making it more difficult to forecast the market conditions. Also, the speed of change was so fast that profit and loss were decided by just a little time difference. This market environment with heavy short-term fluctuations is usually favorable to major capitalists. This is because it is much easier for major capitalists, compared to small and medium-sized merchants, to utilize capital to secure distribution profits by the time differences and to reduce the risk of speculation.

In response to these market conditions, Inchon useon hoesa(仁川郵船會社) traded in rice 1) based on the national power, 2) keeping track of the change of rice price and purchasing situations in Gunsan and Inchon, 3) and also taking care to secure steamships. This seems to be the result of adapting to a rapidly changing market situation to make profits. At the same time, it is a good example of what the merchants generally had to do in order to make profits in rice trading.

www.kci.go.kr

On the other hand, small and medium-sized merchants were in an absolutely disadvantageous position with respect to long-term storage, securing of a steamship, acquisition of price information, and capital strength, so they had difficulty in adapting to the short-term fluctuation of the rice price. Therefore, many small and medium-sized merchants often suffered damages in the rice trading. In other words, the environment of the rice market in the open-port area was dangerous for small and medium-sized merchants but absolutely favorable for a small number of large-cap companies in collusion with the government power.

Key words : rice price, Short-term fluctuations, Inchon useon hoesa(仁川郵船會社), open-port area, Grain Export

www.kci.go.kr

〈부표 1〉 1890~1904년 월별 미가 변화

(단위 : 일본 錢)

년도	지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비 고
1890	인천	609	399	500	450	450	450	442	316	400	360	430	470	
	부산			527				641	588	520	473	481	494	백미
	원산						842	858	780	742	648	620	683	부산백미
1891	인천	510	500	525	510	515	500	530	590	640	670	620	625	
	부산	560		560	540	550	540	627	600	560				백미
	원산		676	660	645	572	610	669	685		699	739	725	부산이입 정백미
1892	인천	618	560	580	550	560	540	560	605	605	595	594	575	
1893	인천	550	545	535	550	570	580	605	640	700	850	760	675	
	부산	600			600			680			900			
	원산	697	676	728	703	709	727	761	754	849	936	851	912	부산이입 상백미
1894	인천	630	641	693	693	650	651	694	948	1160	1175	1125	666	
	부산	740			770	730	740	915	1115	1115	1170	920	830	월말가, 9~10월은 일본미
	원산	921	932	961	918	1020	1009	962	1547	1363	882	1275		부산이입 상백미
1895	인천	606	699	755	703	682	656	729	725	690	648	665	700	
	부산	800	850	850	830	800	800	850	850	750	740	750	750	
	원산	1275	1150	1180	1160	1160	1200	1150	1030	1150	1180	1200	1100	이입 백미
1896	인천	660	668	668	682	695	715	788	800	747	746	770	740	
	부산	660	690	670	690	720	800	790	820	810	750	780	780	백미
	원산	1150	1050	1050	1040	880	960	980	935	1050	1000	950	1080	부산이입 정백미
1897	인천	723	736	756	862	937	912	914	971	984	1073	1136	1125	
	부산	705	755	768	848	955	913	973	908	995	1125	1230	1110	최고최저 평균
	목포											920	798	현미
1898	인천	1115	1200	1332	1485	1478	1437	1523	1534	1412	1130	877	813	
	부산	1155	1165	1485	1550	1465	1425	1385	1420	1175	1060	850	800	최고최저 평균
	목포	790	945	1067	1122	1130	1180	1150	1150	1100	780	600	580	현미, 2~4월은 평균가격
	진남포		1030	1133	1250	1347		1350	1380	900	970		978	
1899	인천	800	855	864	898	940	913	770	773	781	955	1080	1103	
	부산	694	779	754	723	725	720	655	639	670	750	880	1052	수출미 평균
	경성				1275	1300	1300	1350	1350	1150	1190	1325	1390	
	군산					831		743	526	671	765	863	894	백미, 11월은 현미
	목포	620	730	700	720	700	690	550	550	705	820	940	930	현미
	진남포		950			800	775	807	700	764	828	891	942	현미, 2월은 상백미. 7월은 평양가격

www.kci.go.kr

1900	인천	751	707	753		867			867		656	676	723	수출미 평균
	부산	998	930	820	750	720	780							1~3월 최고최저 평균
	군산	750	819	844	775	752	698	646	642	704	750	763	804	수출미 평균
	목포	947	913	797	725	615	680	802	686	647	618	650	665	개량현미
	진남포	840			770	730	700		700			675		현미, 7월과 10월은 분기별 평균
	마산	795	710	660	600	540	540	620	660	560	610	640	660	籾入玄米(籾 3할 포함)
1901	인천	798	731	716	655	663	990	873	1035	1063	1023	1131	919	개량현미
	부산	1021	973	990	980	898	920	1050	1250	1200	1170	1200	960	정백미
	군산	740	740	760	680	640	630	680	1250	945	900	1050	1100	백미
	목포	754	745	750	708	705	724	798	975	890	850	1015	843	최고최저 평균
	마산	523	532	560	565	593	610	706	883	730	723	856	690	籾入玄米(籾 3할 포함)
1902	인천	880	911	891	937	942	968	1013	1032	1060	930	965	961	개량현미
	군산	900	950	945	950	1050	1200	1500	1400	1500	930	970	980	백미
	마산	670	700	700	710	760	830	975	960	962	1110	1100	1060	현미
	평양			945	947	885	960	1020	1000	1130	1075	1020	955	백미
1903	인천	1270	1325	1385	1335	1385	1495	1675	1725	1700	1510	1410	1375	정백미, 최고최저 평균
	군산	970	1060	1150	1300	1350	1500	1300	1175		1030	970	1080	백미
	평양			1176	1211	1256	1408	1454	1435	1181	964	960	902	백미
1904	인천	1485	1700	1700	1535	1510	1515	1500	1465	1400	1497	1522	1354	정백미 최고최저 평균
	군산	1100	1120	1050	1150	1200	1250	1250	1350	1330	1100	1100	1025	백미

출전 : 『통상휘찬』

- 미가기준은 上白米 1石. 다를 경우 비고에 표기.
- 각 개항장 별로 월별미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표기.
- 모든 수치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통상휘찬』에 기재된 월별 평균가.
- 年報를 기준으로 하되 연보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月報나 季報를 활용해 추적.
- 연보와 월보 혹은 계보의 수치에 차이가 있는 경우 월보 혹은 계보를 우선.
- 월보와 계보에도 평균가가 나오지 않은 경우 무역량과 무역액, 최고가와 최저가 등을 활용해 계산.
- 1石=2叭=2.5担로 환산하고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www.kci.go.kr

〈부표 2〉 1890~1904년 미가의 연도별 표준편차

구 분	1890	1891	1892	1893	1894	1895	1896	1897	1898	1899	1900	1901	1902	1903	1904
인 천	72.9	62.9	24.9	99.1	223.1	40.4	48.9	141.9	249.8	112.2	79.5	167.3	55.0	156.2	100.9
부 산	61.6	30.7		141.8	172.5	44.7	57.9	159.8	250.3	113.6	108.7	121.6			
원 산	93.2	50.3		88.7	220.2	58.8	73.7								
군 산										126.8	63.6	203.6	231.8	171.8	106.5
목 포								86.3	221.9	125.2	112.0	103.7			
진남포									187.4	83.9	60.5				
마 산											73.1	121.0	168.0		
평 양													71.2	202.4	

출전 : 〈부표 1〉 1890~1904년 월별 미가 변화

〈부표 3〉 1899년 11월 오사카, 목포, 군산의 미가변화

(단위 : 일본 錢)

구분	초순				중순							하순	
오사카	990	1020	1080	1050	1030	1040	1050	1070	1090	1150	1180	1200	1100
목포	890	910	950	940	920	900	920	950	970	1020	1070	1130	1050
군산	780	780	850	850	850	820	820	820	880	920	950	950	950

출전 : 『통상휘찬』 한국편 8, 「群山十一月商況(33年 1月 5日 在群山分館報告)」, 50면.

www.kci.go.kr